

사람의 숨결 읽는 건축사진의 철학

《원포인트 건축사진》
펴낸 임정의씨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안타까움이 나를 사로잡았죠. 비단 빼어난 건축양식이 아니더라도 인젠가는 소멸될 달동네 같은 가난의 흔적도 렌즈에 담아서 후손들에게 보여주기로 한 것입니다.”

사진의 기능 가운데 시각적 기록과 재현능력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임씨는 대상을 렌즈에 담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가의 설계 의도와 그 건물에 사는 사람의 숨결을 읽는 것”이라고 한다. 그 다음은 피사체의 주변을 며칠씩 맴돌면서 건물이 어느 때, 어느 위치에서 가장 아름다운지를 간파한다고. 이렇듯 힘든 촬영을 마치고도 임씨는 건축 관련 서적을 수십권씩 독파하면서 건축양식을 연구한다. ‘공간개념의 재해석’이 그의 화두다. 입체 공간을 평면구도에 새롭게 옮기는 작업이 머리속에 꼭 차 있어서다.

임씨의 집안은 조부 때부터 사진을 했다고 한다. 아버지 임인식씨는 건축 사진 전문의작가였고, 그 영향으로 임씨도 사진을 배웠다. 그는 얼마전 아르누보에서 해체주의까지의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사진으로 본 건축 100년>(충무로 후지씨롱)을 전시해 그간 건축사진에만 매달린 성과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배은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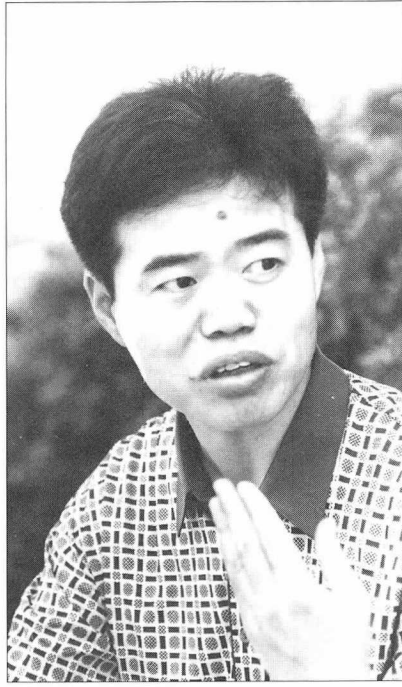
“발품으로 찍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널려 있는 건축물을 찾아서 각고의 세월을 보낸 끝에 《원포인트 건축사진》(타임스페이스)을 펴냈다는 임정의씨(52·청암스튜디오 실장). 20년간 건축사진만을 찍어온 그는 앞으로도 계속 이 외길을 걸어가겠다는, 아주 고집스런 사진가이다.

“사진도 분업화가 돼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진과 연결되는 수많은 영역 중에서 작가 나름대로 테마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듯이 찍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르겠죠. 그러나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무한대인데도 어느 한 분야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우리나라 사진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꼭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광고사진이나 결혼사진 같은 ‘돈이 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다른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룬 자료는 황무지 상태라고 전한다. 건축사진만 하더라도 대부분 번역서이고 국내 사진작가가 직접 쓴 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나마 임씨의 《원포인트 건축사진》이 유일하다. 소형·중형 카메라로 건축물을 촬영할 때의 기법과 이론에 초점을 맞춘 이 책에는 그가 찍은 사진들이 풍성하게 수록돼 있어 전혀 지루하지 않다. 오히려 옛 건축과 현대건축의 변천을 비롯, 내로라하는 건축가들이 설계한 건축물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귀중한 자료구실을 한다. 십년 전부터 치밀하게 기획했다는 이 책은 건축사진의 중요성과 그것을 쫓아 셔터를 눌러대는 임씨의 철학을 보여주기도 한다.

“건축사진은 건축물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특성과 역사기록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전달하는 표현양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을 비롯해 정치·경제적으로 격동의 세월을 보낸 탓에 귀중한 건축유산들을 많이



밤도깨비들의 황홀한 잔치같은 ‘사물놀이’

《사물놀이 이야기》 펴낸 김현선씨

달빛이 온 천지에 질펀하게 흘러내리고 안개가 자욱히 낀 밤, 허물어진 집마당에 도깨비 네마리가 모여 연장을 두드린다. 각기 다른 네가지의 연장소리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듣는 이의 가슴을 옥죄었다가는 풀어주고 마음대로 휘두르다가 종당에는 어깨춤을 들썩이게 한다. 이 음산하면서도 환상적이고 어딘가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분위기의 도깨비 잔치가 김현선(35, 경기대 국문과) 교수에 의하면 곧 사물놀이이다.

그가 최근에 내놓은 《사물놀이 이야기》(풀빛)는 신명을 돋우는 밤도깨비들의 황홀한 잔치같은 사물놀이를 요조모모 살펴 소개한 책이다.

사물놀이는 1978년, 김덕수 김용배 등 전통예인의 피를 이어받은 네명의 천재적인 젊은 치배들이 풍물굿가락을 실내연주에 맞게 판을 짜 연주한 것이 큰 호응을 얻으며 시작된다. 사물(四物)이란 북, 장구, 팽과리, 징 등 네 악기를 지칭하는 것이고 연주되는 장단은 남사당패의 ‘풍물놀이’에 바탕한 것이니 이 둘을 합해 민속학자 심우성이 ‘사물놀이’라 이름붙였다는 것이다.

“사물놀이는 조상들의 전통적인 풍물가락을 철저히 계승하여 그것을 충실하게 활용하면서 새로운 형식을 도입, 대중화 세계화에 성공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사물놀이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는 자신의 무수한 관람경험을 바탕으로 사물놀이에서 연주되는 곡의 원리와 각 장단들의 특성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내드리고 달고 굴리고 땀’ 사물놀이의 현란하고 빠른 장단의 변화를 듣는 귀를 열어주고 싶다는 것이 그의 소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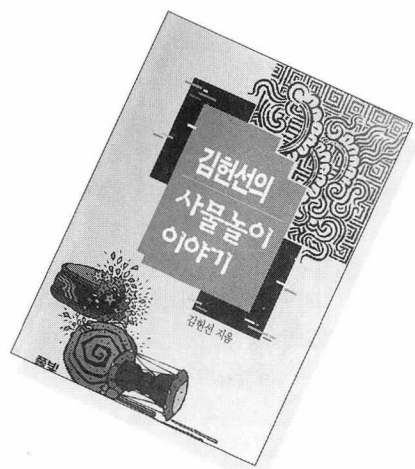
누구보다 강렬한 예술혼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삶을 안타깝게 마감한

탁월한 상쇠 김용배, 사물놀이의 대중화 세계화에 큰 공을 세운 김덕수의 삶과 음악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사물놀이의 천재성을 설명하기에 족하다. 아울러 사물놀이의 새로운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행한 음반이나 다른 음악과의 협연에 대한 비판적인 평도 이 책의 읽는 맛을 더하는 부분이다. 사물놀이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두루두루 쉽게 살피되 곁들거나 알팍하지 않은 이 책의 기술태도는 무엇보다 저자 자신의 우리 전통음악에 대한 사뭇한 사랑에 기인한다.

“80년 대학에 들어 탈반 활동을 하면서 우리 ‘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한 놀이판에서의 황홀한 신명체험 이후부터 한 4년간 혼자 가슴떨리는 짝사랑을 모질게 했습니다.”

그 사랑이 결실을 맺어 88년에는 <사물놀이 세계음악으로의 그 벽찬 전망>(동아일보)이라는 제목의 평론이 당선되었고, 현재 그가 보유하고 있는 사물놀이 공연 테이프만도 90여 개에 달한다고. 한 10년 그 바닥을 밟로 댄 덕에 이제 그는 밤도깨비처럼 사람들의 신명을 깨우는 전통음악인들의 음악을 듣고 평하고 이론화하는 든든한 동지로 자리를 굳힌 듯하다.

—박남정 기자





특파원의 눈에 비친 '청산되지 않은 역사'

《한·일 50년은 청산되었는가》
펴낸 김용수씨

또다른 통환이었다.

1962년 5·16 군사정권이 정치적으로 서둘러 종결시켜버린 한·일회담 때도 강제연행피해자들에 대한 문제는 거의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33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700~800만명에 달했던 피해자들이 역사속에서 화석화해버린 채 남아 있는 현실은 저자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무모함을 스스로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취재기간 동안 무수하게 보아온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피해자들의 주름진 얼굴에서 흘러내렸던 눈물의 농도를 보다 가까이서 증언하고 싶었습니다.”

저자의 말처럼 《한일 50년...》은 우리가 어떻게 과거의 청산과 극복에 실패해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한다.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밝혀지지 않은 과거의 참극을 구체적인 사료를 통해 보여주면서 그것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어떻게 굴절시켜버렸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청산과 극복에 실패한 우리가 언젠가는 몇배로 갚아야 할 역사적 책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허연 기자



‘인간사냥’ ‘노예송출’ 로까지 불렸던 일제 강점기의 강제연행 만행을 현재의 시점에서 심층적으로 파헤친 《한일 50년은 청산되었는가》의 저자 김용수씨(37, 연합뉴스 도쿄특파원)는 “피해자들의 기막힌 처지를 알리려는 의도에서 처음 집필을 구상하게 되었고, 자료수집과 집필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보다 역사적인 시각을 얻게 되었다”고 밝혔다.

“1990년 3월 1일이었습니다. 일선 취재기자들에게는 매년 숙제처럼 돌아오는 3·1절 특집거리를 찾아 나섰다 우연히 정신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강제연행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일 과거사를 직접 듣고 느낀 충격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30대 후반인 저자는 일제치하를 겪지 않은 세대이다. 그는 무지했던 자기 자신이 선대의 과거사에 대해 하나씩 눈떠가는 과정을 ‘행운과 악연이 교차했던 시기’라고 스스로 평가한다.

“역사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기사 쓰는 직업인 사람에게 많은 취재의 기회가 주어진 것은 커다란 행운이었습니다. 반면에 사회가 외면하고 역사로부터 버림받은 강제연행 피해자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역사적 진실의 망각과 표류, 사회의 무기력과 무능, 역사인식의 천박함 등 결코 달갑지 않은 현실을 체감하는 일은 건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저자를 더욱 고심하게 만든 것은 침략의 과거에 대해 눈을 감아온 가해자 일본의 잘못과 책임을 파헤쳐 갈수록, 그것이 무관심과 망각으로 일관해온 피해자 대한민국의 또다른 책임과도 맞닿아 있다는 아이러니를 깨닫는 일이었다. 게다가 국내의 구체적인 자료부족으로 일본인들에 의해 씌어진 것들을 참고해 글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은 그에게



숨쉬는 한반도, 그 숨겨진 비밀캐기

《자연사기행—한반도는 숨쉬고 있다》
펴낸 최영선씨

공룡들이 어슬렁거리고 있고, 동해안의 얇은 바닷속에서는 수많은 삼엽충들이 떼지어 헤엄치고 있다.

“세계적인 퇴적암 관광지로 손색이 없는 변산 채석강이나 한국판 ‘그랜드 캐니언’인 통리 협곡, 이런 곳으로의 여행은 청소년들에게 과학정신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최영선씨는 청소년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인다. 관광지나 명승지의 겉모습만 즐기고 그 지방의 먹거리를 맛보는 것이 전부인 지금의 관광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켜 아이들에게 땅의 역사를 알게 하는 여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 땅의 역사를 알면 자연히 땅에 대해서 애정을 갖게 되고, 그 애정은 향토사랑과 환경운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이 책을 내면서 한가지 마음에 걸렸던 점은 북한을 다루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반도는 숨쉬고 있다’라는 책이름이 제값을 하려면 북한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북한에 방북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 최영선씨는 조만간에 북한 지역을 다룬 《한반도는 숨쉬고 있다 2》가 나올테니 기다려 달라며 활짝 웃어보인다.—한동림 기자

“땅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것도 다름아닌 땅이 아닙니까. 그 땅의 역사에 대해 제 자신이 너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책을 엮는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일간지 기자(한겨레신문)로서 자연과학 전공자가 아닌데도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을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전문가와 함께 현지답사를 거듭한 끝에 우리나라의 지질적, 지사적 배경을 알기 쉽게 재구성, 국내 최초의 ‘관광 지질·지형 안내서’를 펴낸 최영선씨(37). 평생 읽어온 논문보다 더 많은 논문을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읽어냈노라고 그동안의 어려움을 털어놓는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최영선씨는 자신의 이번 저서가 땅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피력했다.

“선진국에서는 명승지 입구에 이름답고 멋진 경관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질학적 배경이 설명된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경우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한예로 해마다 수십만의 관광객이 찾는 부산 태종대는 한반도가 솟아올랐음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해안단구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 돌아가는 관광객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값아지른 절벽이나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 그 어느 곳에도 한반도가 살아 꿈틀거리는 땅임을 알려주는 비밀의 열쇠들이 널려 있다. 수억년 전의 공룡발자국이 3천개 이상 남아 있어 ‘국제적 보물’로 꼽히는 경남 고성 덕명리나 한반도가 두 대륙이 충돌하여 합쳐졌음을 보여주는 임진강 일대 등이 그것이다. 그 열쇠를 찾아내고 이해하고 나면 우리 눈앞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가령, 영남지방의 거대한 호숫가에는

